

【 4 】 서울 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개설공사

공사재개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

발의년월일 : 2003. 6. 16

발 의 자 : 장재훈의원외 7인

☐ 발의이유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일부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수도권 시민의 1일 휴양지인 북한산 국립공원
송추지역과 장흥지역은 행락객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주민의 고통을 방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 현재의 노선대로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함.

☐ 주요골자

1. 당초 사업계획대로 조속히 사업재개 촉구

☐ 덧붙임 : 결의안 1부.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도로 개설공사 공사재개 촉구결의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공사를 2001년 6월에 착공하여 200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용지보상을 94.8%이고 5개 터널구간중 사패산터널을 제외한 터널공사의 공정률이 80%이며 전구간의 공정률은 22%에 달하는등 상당한 공사가 추진되었음에도

일부 환경단체와 불교계의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기 훼손된 자연환경의 원상복원이 불가능 한데도 현 노선을 재검토하는등 천문학적인 사업비의 증가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후손에게 기리 물려줘야 될 환경파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수도권 시민의 1일 휴양지인 산자수려한 북한산국립공원 송추지역과 장흥지역에 행락객이 급격히 감소하는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대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은 침묵을 지켜왔으나 노선을 재조정할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1만여 장흥지역 주민의 고통을 방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교통및 환경영향평가등 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음에도 일부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현재의 노선대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불신은 물론 대외신인도의 하락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심히 우려되며 양주군의회 또한 지역의 대표기관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노선이 재조정될 경우 자연환경의 훼손면적이 증가됨은 물론 추가 편입되는 지역의 민원발생과 우기를 앞두고 재해발생이 우려되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만 고조가 예상되므로 현재의 노선대로 공사를 재개하여 조기에 완공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3. 6. 19

양 주 군 의 회 의 원 일동